

#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 - 1910년~1945년을 중심으로 -

김 새 봄 · 이 은 숙\*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A study on Woman Costume presented in the Korean Modern Novel - focused on the period from 1910 to 1945 -

Sae-Bom Kim · Eun-Sook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Graduate Student · Associated Professor\*  
(2003. 7. 28. 접수)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woman costume presented in the Korean modern novel by continuity, mixture, and discontinuity. For the costume analysis, the Korean modern novel written from 1910 to 1945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ontinuity: It doesn't mean discontinuity from the past but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past, which explains about the costume culture for the period from 1910 to 1919. During this period, people tended to wear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 an effort to maintain their national identity.
2. Mixture: It means the effort to synthesize and develop past, present and future, which explains about the apparel for the period from 1920 to 1937. During this period, western culture was introduced much into Korea to be established as part of our people's life. The new generation of women who studied abroad introduced the western costume throughout the cities, while the convenient western costume served to improve Korean traditional costume.
3. Discontinuity: It means a conscious departure from the past as well as a critical reaction to the past, which explains about the costume culture for the period from 1938 to 1945. For this period, western costume was popular among new generation of women, while it was more diversified with increasing population wearing them. Many country men and women proceeded to wear the western costume.

**Key Words:** continuity(연속성), mixture(혼합성), discontinuity(단절성), woman costume(여자복식), Korean modern novel(한국근대소설),

## I. 서론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사회적 특성, 정치, 경제, 예술, 가치관, 도덕성 등이 반영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그 시대상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중 인물의 감정, 성격, 정체성, 취향 등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표현되는 복식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 주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특성을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소설의 등장인물의 복식 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적인 특징이 전달될 수 있다.

한국 근대소설은 1906년부터 1945년까지의 소설로 구분되거나<sup>1)</sup>, 이광수의 "무정(1917)"을 20세기 한국 근대소설의 출발점으로 내세워 1910년대로 보기도 한다<sup>2)</sup>. 한국 근대는 서양문화가 유입된 과도기적 시기를 바탕으로 전통과 외래의 접점을 묘사하는 시대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다<sup>3)</sup>. 이 시기의 특징은 전통문화의 고수 혹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혼합 혹은 외래문화의 우세 등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을 띄게 된다.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환기의 복식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시대별 분류에 의한 소설에서 잘 묘사되어지고 있다.

복식과 소설과의 분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유지현, 한명숙(1997)의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의례와 복식 분석(I)"이 있는데, 이는 통과의례 및 복식을 화용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정현숙, 김진구(1999)의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에 나타난 복식역할의 분석"에서는 역할이론을 토대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분석하였고 이유경, 김진구(1993)의 "<A Tale of Two Cities>에 나타난 복식의 계층 상징성 연구"에서는 계층에 따른 복식의 상징성을 분석하

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현대소설 혹은 국외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환기의 근대소설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을 분류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의 특징을 토대로 연속성, 혼합성, 단절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기존문헌과 선행 연구논문을, 여자복식 분석을 위한 근대소설은 그 시대의 복식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소설을 선정하여 1910년부터 1945년을 중심으로 무단통치기(1910년~1919년)에 발표된 안국선의 "인력거꾼(1915)", 최찬식의 "추월색(1912)", 이광수의 "무정(1917)", 문화정치기(1920년~193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유정(1927)", "흙(1932)", 채만식의 "탁류(1937)", 황민화정치기(1937년~1945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사랑(1938)", 채만식의 "태평천하(1939)", 이태준의 "석양(1943)"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근대복식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 반영된 디자인 기획의 필요성을 주시시켜 주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의 근대소설에 해당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세 시기, 즉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무단통치기,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1920년부터 1937년까지의 문화정치

1) 전광용 (1983), 「한국 근대소설의 이해(II)」, 민음사, p.947.

2) 양문규 (1994), 「한국근대소설사연구」, 국학자료원, p.61.

3) 김진구, 김애련 (1999), 매일신보광고를 통해 본 일제시대 한국복식 변천, 복식문화연구 7(2), p.231.

4) 한국사편집위원회 (1995), 「한국사 13-식민지시대의 사회경제(1)」, 한길사, pp.114-168.

기,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황민화정치기<sup>4)</sup>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무단통치기

무단통치기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로 조선 민중의 반일저항을 진압하고, 미숙한 일본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기반을 강권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기였다<sup>5)</sup>. 이 시기는 일제가 한국경제를 자신들의 경제체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 시작하였으며, 「토지조사사업령」, 「회사령」 등으로 자본주의적 소유권 개념을 이식하고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을 억누르는 한편, 「조선태형령」 「조선형사령」 등으로 '법치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민족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탈하였다<sup>6)</sup>. 또한 일제는 각종 법령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한국인의 근대적인 정치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그 가운데서도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민족교육의 억압과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일이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탄압과 침탈은 한국인의 정신까지 억압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민족적 각성을 촉구시켰고 해방운동과 민족운동으로 이어져 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문화정치기

문화정치기는 1920년부터 1937년까지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은 비록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일본으로 하여금 통치방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sup>9)</sup>. 그러나 동화교육·노예교육 자체를 철폐하는 근

본적인 개혁을 단행한 시기는 아니었으며<sup>10)</sup>, 오히려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전보다 더 혹심한 압박이 한국인에게 가해지고 생활의 파괴가 진행되었던 것이다<sup>11)</sup>. 문화정치란 경찰제도나 지방제도 등의 제반 개혁을 통하여 헌병 중심의 노골적인 무단통치를 보다 세련된 모습을 갖춘 경찰 중심의 정보장치로 바꾸고 친일세력을 육성해 탄압과 회유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통하여 수탈과 지배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제로의 동화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sup>12)</sup>. 이 시기에 한국인은 민족운동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일제의 동화정책에 반발하여 우리문화를 고수하고자하는 일환으로 의례문물의 절충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와의 혼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③ 황민화정치기

황민화정치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공황, 특히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의해 조선의 농업이 황폐화되고 농민의 경제적 몰락이 심화되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의 계급적·민족적 모순이 격화되어 지배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sup>13)</sup>. 황민화정책은 1938년 2월의 지원병제도, 같은 해 3월의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1940년 창씨개명(創氏改名)의 세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을 총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설정하고 조선의 모든 자원을 끌어내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의 강압적인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5)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p.286.  
 6) 권태억 외 4인 (1994), 「근현대 한국담사」, 역사비평사, p.104.  
 7) 신용하 외 4인 (1991), 「일제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p.143.  
 8) 강만길 외 11인 (1994), 「한국사 13」, 한길사, p.134.  
 9) 권태억 외 4인 (1994), op. cit., p.157.  
 10) 이도상 (2003),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경인문화사, p.172.  
 11) 김승일 (1995), 「근대 한국과 일본」, 범우사, p.151.  
 12) 한국사편집위원회 (1995), op. cit., p.141.  
 13) 한국사편집위원회 (1995), op. cit., p.159.  
 14) 이도상 (2003), op. cit., p.184.

우리문화 고수에 어려움을 겪고 일제의 전쟁정책에 협력함으로써 일본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2) 한국 근대소설의 특징 한국 근대소설의 특징

한국 근대소설은 1906년부터 1945년까지의 소설 혹은 1910년대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소설<sup>15)</sup>로 분류된다. 근대소설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무정(1917)"을 내세워 1910년대를 한국 근대소설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소설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보고자 한다.

한국 근대소설의 특징은 전통적인 소설양식과 서구소설의 영향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실시, 기독교에 의한 성경·찬송가의 보급, 저널리즘의 발전, 문법의 체계화를 비롯한 어문연구 및 자국어에 대한 자각 등은 새로운 문학작품의 창작 및 광범위한 새로운 독자층 확대에 직·간접으로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단통치기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로서, 일제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관계가 경제적 기본 명맥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나 전(前)근대적인 봉건적 유제가 미만해 있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sup>16)</sup>. 1910년대 소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반(反)봉건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형상화한 일련의 계몽주의 소설들이 1910년대를 휩쓸게 되지만 당대의 계몽운동은 식민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제와 때로는 타협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여 예속적인 성격까지 나타내었다. 1910년대 대표적인 계몽주의 소설가인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자유혼인의 문제가 적극 개진되어 전통적 인습 및 윤리와 충돌하는 내용들이 표현

되어졌다. 이 시대의 소설로는 최찬식의 "추월색(1912)", 안국선의 "인력거꾼(1915)", 이광수의 "무정(1917)"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정치기는 1920년부터 1937년까지로서, 1919년 3·1운동은 한 시기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성, 발전하기에 이르렀다<sup>17)</sup>. 3·1운동은 자주독립의 의지와 기세를 재확인시켰고 근대적 시민사회를 이룩하려는 민주적 인식을 크게 보편화시키는 운동이 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근대소설은 봉건적 가치인식과 근대지향적 자세가 혼용된 과도기적 미의식에서 벗어나 차츰 낭만적 현실주의로 성숙하였다<sup>18)</sup>. 1920년대의 근대소설은 리얼리즘의 인식태도와 서사기법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1930년대는 삶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지방주의의 모습이 뚜렷한 대비관계를 나타내었다<sup>19)</sup>. 이 시대의 소설로는 이광수의 "유정(1927)", "흙(1932)", 채만식의 "탁류(1937)" 등을 들 수 있다.

황민화정치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서, 일제의 억압이 극심하여 국어사용의 금지, 창씨개명 제도의 강제시행, 민족언론지와 동인지의 폐간 등으로 우리문학의 암흑기로 표현되었다. 일제는 모든 문학을 '일본의 국민적'인 것이 될 것을 강요하여 저항적 내용의 작품 혹은 리얼리즘 작품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대의 소설로는 이광수의 "사랑(1938)", 채만식의 "태평천하(1939)", 이태준의 "석양(1943)" 등을 들 수 있다.

## (3) 용어의 정의

### ① 연속성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

15) 이주형 (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작과 비평사, p.5.

16) 양문규 (1994). op. cit., p.246.

17) 이재선 외 (1990). 「한국소설사」. 현대문학, p.394.

18) 이재선 외 (1990). op. cit., p.395.

19) 이재선 (2000). 「한국소설사」. 민음사, pp.286-513.

20)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p.4356.

이나 상태<sup>20)</sup>로 정의된다.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에서는 전통복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착용하거나 전통복식의 착용을 더욱 고조시킨 현상으로 설명된다.

② 혼합성

뒤섞어 한데 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混和)하는 일<sup>21)</sup>로 정의된다.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에서는 전통복식과 외래복식간의 혼합, 전통복식과 외래복식의 아이템 매치나 외래복식의 편리성을 전통복식에 도입하여 개량화한 형태 등으로 설명된다.

③ 단절성

흐름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유대나 연관관계를 끊는 것<sup>22)</sup>으로 정의된다.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에서는 전통복식의 착용이 단절된 상태, 전통복식보다는 외래복식의 착용이 더욱 고조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Ⅲ.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환기인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무단통치기(1910년~1919년), 문화정치기(1920~1937), 황민화정치기(1937~1945)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 대표적인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의 특징을 연속성, 혼합성, 단절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속성

무단통치기(1910~1919)는 한국의 경제를 일제에 예속시키기 위해 지배기구 및 통치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시기로 강력한 헌병경찰력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의 정책에 반발하여 애

국운동과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강요된 개화에 맞서 새로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것을 고수하고 지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동질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의 연속적인 입장에 있는 '연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전통복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착용하거나 전통복식의 착용을 더욱 고조시킨 현상들로 설명될 수 있다.

안국선의 "인력거꾼(1915)"에서는 "그 아내가 머리에 꽃은 귀이개를 빼어 가지고"에서 귀이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귀이개는 처음 귀지를 파내기 위해서만 만들어졌으나 점차 장식적인 성격도 띠기 시작하여 한때는 금이나 은·옥 같은 것으로 만든 것도 나왔다. 그리고 몸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거나 칠보를 입혀 부녀자들이 쪽진 머리의 뒤꽂이로 애용해 온 적도 있었고 노리개로 애용되어 온 적도 있었다. 여기서는 "머리에 꽃은 귀이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자들의 머리 뒤꽂이용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불 개어 놓은 뒤에 가서 자네 행주치마를 쓰고 숨었더니"와 "저 이불 위의 행주치마가"에서 나타나는 행주치마는 걸치마 폭보다 1폭이나 1폭 반정도 좁게 하고 길이도 한 뼘 정도 짧게 하여 주름을 잡아 말기에 달았으며 보통 치마와 형태가 비슷하나 뒤 한복판에서 긴 사다리꼴로 벌어지고 치맛단 쪽으로 걸치마의 아랫부분이 약간 내다보이는 형태로서, 부녀자들이 일을 할 때 착용하였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최찬식의 "추월색(1912)"에서 표현되어진 "정임이가 집 떠날 때에 머리는 전번같이 땅은 채로 옷은 분홍춘사적삼, 옥색 모시 다린 치마 입었던 채로"에서는 미혼녀임을 나타내는 땡기머리인 땡은 머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 의복인 적삼과 모시치마가 나타나고 있다.

이광수의 "무정(1917)"에서 "모시 치마 저고리에"와 "사십이 필락말락한 부인이 연옥색 모시

21) 이승녕 (1999). 「새국어대사전」. 한국도서출판중앙회, p.1456.

22) 동아출판사 편집국 (1995).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510.

적삼, 모시 치마에 그와 같이 차린 여학생을 뒤세우고"에서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면, 모시치마와 저고리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애용해 온 여름용 의복이다. "머리에 핏빛 같은 왜증 땀기를 dri고 손에는 누런 빛 있는 옥지환을 껴다"에서 나타난 왜증땀기는 미혼자의 땀은 머리끝에 드린 형질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전통 머리장신구이며, 옥지환은 부녀자의 여름용 반지 중의 하나이다. "영채의 반질반질한 머리와 꽃비녀와 하얀 목과 등을 보며"에서 나타난 꽃비녀는 부녀자의 머리를 고정시키는 전통장신구이다. "새까만 머리를 느긋느긋 땀고 끝에다 새빨간 왜증 땀기를 드렸다. 그 머리채가 휘임하여 내려가다가 삼각형으로 접은 땀기 끝이 치마허리 즈음 하여 가로누웠다"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녀들의 머리양식과 장식인 땀기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장옷을 쓴 부인이 계집아이에게 등불을 들리고 다니는 이도 있다"에서 나타난 장옷은 조선시대부터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내외용(內外用)으로 머리부터 내리쓴 쓰개이다.

이 시기의 소설에 나타난 여자복식을 살펴보면 유행선도자 위치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복식이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 시기는 전통의 고수현상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많이 착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잃은 나라를 되찾자는 불타는 애국심 속에서 한복을 즐겨 착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장유행의 변화는 완전히 정지상태가 되었기 때문<sup>23)</sup>이라 할 수 있다.

## (2) 혼합성

문화정치기(1920~1937)는 일제가 한국을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지로 삼아 잉여 자본의 투하시장, 일본상품의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기로 서양과 일본의 문물이 많이 유입되었

다. 이 시기는 3·1운동을 기점으로 교육진흥운동, 산업진흥운동 등의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여성의 근대교육이 활발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옷을 간편하게 입고자 개량한복이 착용되어졌으며 외래복식의 혼합이 나타나졌다.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과거의 것과 전통적인 어떤 것들을 절충해서 혼합된다는 '혼합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혼합성'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전통복식과 외래복식간의 아이템 매치와 외래복식의 편리성을 전통복식에 도입하여 개량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광수의 "유정(1927)"에서 "정임은 중국 계집애 모양으로 앞머리를 이마에 나불나불 자르고 푸른 청옥 두루마기를 입은 소녀였소"에서 외래적 요소, 즉 중국의 머리양식과 우리나라 전통복식인 두루마기의 매치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이광수의 작품인 "흙(1932)"에서 "정선은 형의복도 벗어서 하늘빛 하부다이 남치마에 은조사 깨끼저고리를 입었다"에서 깨끼저고리는 우리나라의 여름용 저고리이며, 하부다이는 얇고 부드러운 윤이 나는 비단의 일종으로 비단이나 견이라는 말대신 일본어로 불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복식인 깨끼저고리와 비단을 지칭하는 일본어인 하부다이가 혼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루마기 안은 짙은 자줏빛 하부다이였다."에서도 전통복식인 두루마기와 외래어인 하부다이가 혼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은조사 적삼에 둥근 남무늬 있는 보이루 치마를 입고 구두만은 검은 칠피를 신었다. 머리는 가마 있는 데 약간 속을 넣어 불룩하게 하고 쪽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틀었다. 그리고 금테 안경을 썼다"에서 보이루는 평직으로 성기게 짠 얇은 직물로 프랑스어로는 보일(voile)이라고 불리는 '사(紗)'종류이며, 여기서는 전통복식인 은조사 적삼과 외래적 요소인 보이루 치마, 검은 칠피구두, 머리양식, 안경, 즉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혼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선은 양복

23) 유수경 (1991),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150.

을 입을까 하다가 그것도 귀찮다고 해서 그만두고 검정 세루 치마에 흰 저고리, 눈에 아니 뜨이는 옷을 입고, 게다가 검정 나단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에서 '세루'는 일명 '사지'라고도 불리어지는 소모사로 짠 모직물인데 이는 외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흰 저고리와 외래적 요소인 '세루'의 매치는 혼합으로 설명되는 예로 볼 수 있다. "한 남 보이루 치마 입고 머리 기름 발라 쪽진 여자 하나가"에서도 외국소재인 보이루와 전통 머리양식인 쪽진 머리의 혼합이 나타나고 있다. "머리는 학생 머리로 틀고 옷도 수수한 검은 세루 치마에 흰 삼팔 저고리, 학교에 다닐 때에 입던 외투와 핸드백을 손에 들고 모습을 감추기 위함인지 알이 검은, 빛나는 인조 대모테 안경을 썼다"에서는 외국소재로 만든 검은 세루 치마와 전통복식의 개량형태인 흰 삼팔 저고리가 묘사되고 있어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만식의 "탁류(1937)"에서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태수는 그 여학생의 차림새가 너무 조출하고, 더욱 트레머리에 통치마는 입어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것이, 혹시 공장이나 정미소에 다니는 여직공이 아닌가 했다"에서 통치마는 전통 한복치마에 어깨허리를 달아 활동하기 편안하게 개량한 것이다. 이러한 통치마에 전통적 복식인 고무신과 버선, 트레머리는 혼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초봉이는 결혼한 뒤로는 이내 쪽을 찌고 있던 머리를 학생 머리로 고쳐 틀고, 옷은 수수하게 흰 모시 진술 적삼에 검정 치마를 매치시켰다. 혼인 때 산 구두도 처음으로 꺼내 신고, 역시 혼인 때 태수가 사준 파라솔과 핸드백을 가졌다"에서는 전통복식인 흰 모시 진술 적삼과 검정 치마에 서양 장신구인 파라솔과 핸드백의 매치는 혼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화정치기에 일제는 걸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민족의 민족의식

을 자각하게 하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말살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한복착용보다는 양장착용을 적극 권장하였다<sup>24)</sup>. 따라서 이 시기는 우리나라 전통복식과 외래복식인 양장과 소재, 외국 장신구가 혼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단절성

황민화정치기(1937~1945)는 일제가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기치 아래 조선민중을 인적으로 총동원하는 동시에 대륙병참기지화하기 위한 시기이다. 일제는 각종 사회·문화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민족말살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전통문화가 서서히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과의 단절, 과거의 소멸과 쇠퇴를 의미하는 '단절성'으로서 한국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전통복식의 착용보다는 외래복식의 착용이 더욱 고조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광수의 "사랑(1938)"에서는 "옥색이라기에는 너무 진하고 남이라기에는 너무 연한 파라솔을", "핸드백을 들고 대합실에서 나와서", "검정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을 쳐들고는 당장 열어 보려는 듯이 장식에 손은 대었다가 열지는 아니하고"에서 전통적인 외출복인 장옷 대신 외래적 장신구인 파라솔과 핸드백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곁에 떨어진 초록줄 남줄이 있는 순옥의 손수건을 들어"에서는 손수건에 외래적 분양인 스트라이프 패턴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순옥의 팔뚝시계 소리와 함께"에서 외래적 장신구인 팔뚝시계가 등장하고 있다. "새로 수영복을 사고 고무모자를 신고 캡까지 사려다가"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수영복과 고무모자, 캡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원은 구두 상자를 열고 첩피 구두를 내어서 순옥의 발 앞에 놓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무신 대신에 구두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순옥이가 흰 무명 양말을 벗는

24) 유수경 (1991). op. cit., p.173.

다. 그것은 군데군데 꿰맨 것이었다"와 "그리고 은빛에 연옥색을 섞은 빛깔나는 비단 양말을 신는다"에서는 버선 대신에 무명양말이나 비단양말을 신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허영은 순옥에게 목도리, 장갑 같은 선물도 사 가지고 들어왔다"에서 외래적 장식구인 목도리와 장갑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순옥은 옥색 송고직 원피스에 역시 옥색에 가까운 남빛 비옷을 입고 오긋한 맥고 모자를 소곳하게 쓰고 있었다"에서 외래복식인 원피스와 비옷이 나오며 선원모자였던 맥고 모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옥은 수영복처럼 생긴 일광욕복을 입고 등교의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에서는 일광욕복이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원은 경쾌한 송고직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흰 바탕에 초록 줄이 있는 게 산뜻한 감이었다"에서도 외래복인 원피스가 우리나라 전통한복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1939)"에서 "머리는 알고 보면 중동을 몽땅 자른 단발머리에다가 다리를 들인 거랍니다. 앞머리는 좀 자르기도 하고 지저서 오그려 붙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편을 꽃았습니다"와 "옆으로 앉아서 고개를 내두르는 대로 뒤통수의 몽창한 단발이 까불까불합니다. 치렁치렁하던 머레채가 다레를 뽑아 버리면 이렇게 여학생이 됩니다"에서 우리나라 미혼녀의 전통 머리양식인 땅은 머리 대신 단발머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심이한테 코-티의 콤팩트와 향수 같은 것을 선사했고, 춘심이는 하부다이 손수건에다가 그다지 쓸 수는 없으나 제 솜씨로 경손이와 제 이름을 수 놓아서 선사했습니다"에서는 서양 화장품인 코-티 콤팩트와 향수가 등장하고 있고 하부다이 손수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의 "석양(1943)"에서 "흰 바탕에 초록 나뭇잎이 들성들성 찍힌 수수한 원피스로 위아래가 설명하니 드러났다"에서 초록 나뭇잎 무늬의 흰 원피스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푸른 파라솔과 흰 형겔 구두가 두 짝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에서 파라솔과 구두가, "모래를 툰 구두 속

에 제 짝씩 발을 넣어 주고 단추를 푹푹 잠가 주었다"에서는 단추 달린 구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피스, 그 맨발에 그 흰 구두, 그 파라솔이었다"에서 전체적 복장이 원피스, 구두, 파라솔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황민화정치기의 근대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자복식을 살펴본 결과, 전통복식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묘사된 여자의 외모에서 외래적 요소의 설명이 많이 나타나거나 문장의 묘사에서도 외래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복으로 사용되어진 전통복식의 소멸과 더불어 외래복식이 일상복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단절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IV. 결 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환기의 세 시기인 무단통치기(1910년~1919), 문화정치기(1920~1937), 황민화정치기(1937~1945)의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의 특징을 연속성, 혼합성, 단절성으로 분류하여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단통치기의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연속성'으로 설명되었다. 안국선의 "인력거꾼(1915)", 최찬식의 "추월색(1912)", 이광수의 "무정(1917)"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복식인 한복의 착용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잃은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에서 전통복식을 더욱더 애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2. 문화정치기의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혼합성'으로 설명되었다. 이광수의 "유정(1927)", "흙(1932)", 채만식의 "탁류(1937)"를 통하여 전통복식과 외래복식과의 절충, 전통한복의 개량화 형태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통복식과 외래복식간의 아이템의 절충, 외래복식과 전통복식의 합성인 개량한복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일제가 걸으려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고유의 미풍양속말살을 위하여 한복착용보다는 양장착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전통한복과 외래복식과의 혼합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 황민화정치기의 근대소설에 표현된 여자복식은 '단절성'으로 설명되었다. 이광수의 "사랑(1938)", 채만식의 "태평천하(1939)", 이태준의 "석양(1943)"에서 표현된 복식은 전통복식과의 단절, 외래복식의 대중화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교육이 활성화되어 신여성층의 증가와 여성의 양장착용 증가 등이 외래복식의 대중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전의 시기보다 양장착용도 훨씬 다양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 근대복식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연구로는 6·25사변을 기점으로 한 복식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강만길 외 11인 (1994). 「한국사 13」. 한길사, p.134.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p.4356.  
 권태억 외 4인(1994). 「근현대 한국탐사」. 역사비평사, pp.104-157.  
 김승일 (1995). 「근대 한국과 일본」. 범우사, p.151.  
 김준식 편저 (1997a). 「우리시대의 한국문학(19)」. 계몽사.  
 김준식 편저 (1997b). 「우리시대의 한국문학(22)」. 계몽사.  
 김진구, 김애련(1999). 매일신보 광고를 통해 본 일제시대 한국복식 변천. 복식문화연구 7(2), p.231.  
 동아출판사 편집국 (1995).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510.  
 신용하 외 4인(1991). 「일제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p.143.  
 양문규(1994). 「한국근대소설사연구」. 국학자료원, pp.61-246.  
 유수경 (1991).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p.150-173.  
 유지현, 한명숙 (1997).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 의례

와 복식 분석(I). 복식문화연구 5(1).  
 이광수 (1980). 「흙」. 흥문사.  
 이광수 (1993). 「무정」. 춘원출판사.  
 이광수 (1994). 「유정·꿈」. 일신도서출판사.  
 이광수 (1997). 「사랑」. 하서출판사.  
 이도상 (2003).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경인문화사, pp.172-184.  
 이승녕 (1999). 「새국어대사전」. 한국도서출판중앙회, p.1456.  
 이유경, 김진구 (1993). 「A Tale of Two Cities」에 나타난 복식의 계층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2).  
 이재선 (2000). 「한국소설사」. 민음사, pp.286-513.  
 이재선 외 (1990). 「한국소설사」. 현대문학, pp.394-395.  
 이주형 (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작과 비평사, p.5.  
 이태준 (1995). 「한국소설문학대계 20」. 동아출판사.  
 정현숙, 김진구 (1999).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에 나타난 복식역할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7(4).  
 전광웅 (1983). 「한국 근대소설의 이해(II)」. 민음사, p.947.  
 채만식 (1997). 「탁류」. 계몽사.  
 채만식 (2002). 「태평천하」. 청목출판사.  
 한국사편집위원회 (1995). 「한국사 13-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한길사, pp.114-159.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p.286.